

해외출장 결과 보고

I. 출장 개요

- 출장건명 : 제2회 G-20 AMIS 세계 식량시장 정보그룹 회의
(2012.10.2(화)~4(목) 이탈리아 로마(FAO 본부, Green Room))
- 출장목적 : 제2회 G-20 AMIS 세계 식량시장 정보그룹 회의 참석
- 출 장 지 : 이탈리아 로마
- 출장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급	성명
농업관측센터 곡물실	부연구위원	한석호
	초청연구원	조우림

○ 출장 일정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10.1 (월)	인 천 (11:10)	로 마 (19:45)	인천공항→프랑스 파리→로마 도착	◦출 국
2	10.2 (화)	체	재	◦FAO 본사	◦세계 농업 시장, AMIS, 민간 부문에 관한 토론 ◦미국 선물시장의 투명성, 도 드프랭크법안 시행 결과 보고
3	10.3 (수)	체	재	◦FAO 본사	◦AMIS D/B, 통계 관련 국가 별 에러사항 논의
4	10.4 (목)	체	재	◦FAO 본사	◦통계 도구(statistical tool) 및 D/B 관련 워크샵
5/6	10.5/6 (금/토)	로 마 (금, 14:30)	인 천 (토, 14:45)	로마→프랑스 파리→인천공항 도착	◦귀 국

II. 출장 내용(회의 핵심 요지)

1. 농업시장 전망 및 분석 (10월 2일)

1.1. 농업 시장 전망

- 농업 시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정세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계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됨. 따라서 AMIS 품목 위주(밀, 옥수수, 콩)로 2012/13년 농업시장 전망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초청한 민간업체(Morgan Stanley)의 전망 견해를 들어 봄
- Hussein A. Alidina, Executive Director, Morgan Stanley (발표 내용)
- 국제 밀 수급상황은 최근 러시아 등 주요 수출국의 가뭄으로 초과수요상태이며, 기말재고율이 하락 전망. 연말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남반구 호주의 가뭄으로 내년까지 수급상황 개선여지가 없음. 또한 밀 사료용 수요는 옥수수 가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나, 최근 사료용 밀수요가 증가추세임.
- 옥수수는 미국의 가뭄으로 역사상 최저의 기말재고율이 전망되나 최근가뭄으로 곡물가격이 급등하여 남반구 재배(의향)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따라서 내년 수급상황은 개선될 전망.
- 대두는 올해 2월부터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라니냐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생산량이 전년보다 감소한 상태에서 미국의 가뭄으로 6월 이후 톤당 600달러이상 급등하였음. 그러나 가격 급등으로 남반구 재배(의향)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내년 수급상황은 개선될 전망.
- 2012/13년 국제곡물 가격 급등은 주요 수출국의 이상기후 때문이며, 특히 미국의 가뭄으로 미국의 생산량이 과거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하였음. 옥수수의 경우 아직까지 에탄올 생산성대비 경제성이 좋아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성 감소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향후 현재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올해 9월 이후에 파종할 남반구(브라질, 아르헨티나)의 파종(의향)면적은 미국 USDA/ERS의 전망치(의향면적)와 비슷하게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단수(단위면적당 수확량)에 관한 전망은 기후에 의존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 그러나 내년 남반구 단수를 과거 10년 추세를 적용할 경우, 옥수수, 대두

생산량이 증가하여 현재의 수급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1.2. 자료 수집·분석·전망 관련 주요 민간 부문 담당자 참석 토론

- 사무국은 국가 간 자료 공유 장려와 현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 구축 강화를 언급 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민간 기관들도 농업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곡물 메이저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추정 및 예측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사무국은 AMIS와 주요 민간 기관들 간의 긴밀한 업무 관계 구축 및 공동 작업은 상호간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함.
- 초청된 민간기관의 패널들은 공동 작업 활성화 방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정보나 자료가 다를 경우의 대응 방안 등 논의.
 - 패널 : Benjamin Asmellem(Morgan Stanley, 농업무역부장), Andree Defois(Strategie Grains, 대표), Keith Flury(Rabobank, 수석상품분석가), Ben Savage(Jackson, Son & Co., 전무이사) 등

가. 곡물시장정보 데이터 수집 및 정보교류

- 사무국은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모니터링을 통한 관측 데이터 수집을 웹 서비스를 통하여 구축하고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정량적, 정성적 분석결과를 제공하되, 민간과 공공기관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양질의 정보제공이 필요함을 강조.
- 민간기관의 패널들은 AMIS 및 국가별 공공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민간부분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상호 보완된다면 곡물시장분석에서 투명성 있고 현실성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모두 동의함.
- 그러나 대부분의 패널들은 민간기관이 AMIS에 어떻게 참여하고 AMIS 및 국가별 공공기관의 정보를 민간부분이 어떻게 정보를 제공 받을 것인지 세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AMIS 및 국가별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민간기관에 제공한다면 민간부분에서 정보를 받아 수급불균형에 따른 가격급등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AMIS가 어떻게 견고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향후 action plan이 중요함. 과거 곡물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곡물시장분석 시스

템에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었음. 분석결과에 대해서 민간, 공공기관 모두 정보를 교류해야함.

- 패널들은 향후 action plan으로 AMIS와 민간기관의 정보교류(관측분석결과 또는 데이터 구축)는 미국 USDA/ERS의 곡물관측정보제공 이후 각 기관에서 상호 정보를 교류해서 최근 데이터로 수정한 후 AMIS를 통해 공표하고 다시 미국에서 AMIS 정보를 받아 최근데이터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나. 곡물시장정보 데이터의 투명성

- 패널들은 민간부분과 공공기관 모두 우선적으로 데이터의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고 데이터 수집 시 항상 블랙박스(black box) 데이터 수집 부분이 있음을 강조함.
 - 예를 들어 중국을 언급. 어떻게 중국정보를 얻을 것인지 향후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블랙박스가 항상 가격의 불투명성 및 변동성을 크게 할 수 있음을 시사.
- 사무국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중국이 국제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강조.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기구 등은 중국의 수요변화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임. 이와 같이 중국의 수요측면의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언급.
- 패널들은 현재 민간 및 공공기관의 곡물시장정보는 대부분 공급측면의 정보로 어느 정도 투명성이 있다고 언급. 그러나 수요정보를 알아야 미래가격의 방향성을 알 수 있으며 각 국가단위의 수요정보가 매우 필요함을 강조.

1.3. 미국 선물 시장 투명성 및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도드-프랭크(Dodd-Frank) 법안 적용 결과

- 미국 선물거래위원장이 “선물거래위원회는 리스크를 낮추고 투명성을 신장하며 미국의 공공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의 적용을 기대하고 있다” 고 밝히는 등 최근 미국 선물은 농산물의 국제 거래와 가격 예시기능(price discovery)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도드-프랭크 법안(Dodd-Frank)

- 지난 2007~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으려고 마련된 금융 개혁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2010년 6월 25일 금융개혁 단일 법안을 도출하였으며 1930년대 초 금융규제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대대적인 규모임.
- 금융개혁 단일 법안은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와 장외파생상품(over-the-counter derivatives) 등과 같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투자활동을 제한하고, 대형 금융기관이라도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감독 당국에 부여.
- 신용카드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불공정한 수수료나 고금리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내부에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
- 파생상품 규제도 당초 요구됐던 스와프와 같은 위험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보다 완화. 즉, 단일 법안은 파생상품 규제 수위를 낮추어, 자신들의 위험 분산과 관련해 파생상품 거래를 지속할 수 있고, 금리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거래도 유지할 수 있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시장 기능을 최대한 정상화하기 위해 얼마나 감독을 강화해야하는지에 대해 사무국 초청으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발표.

□ Bart Chilton, Commisioner, CFTC(발표 내용)

- 미국 시카고선물거래소가 건설된 이후 모든 투자자들은 각자의 목적에 따라 곡물선물시장에서 매수 및 매도를 할 수 있으며 최근 불투명한 선물거래(투기세력)로 인해 국제선물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 따라서 규제가 필요하며 선물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중요시 됨. 즉, 선물거래의 모든 정보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필수적임.
- 미국 도드-프랭크 법안은 선물시장에서 투기거래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해서 2년 전 부터 준비를 하였고 최근 모든 법안을 설계하였으나 현재 까지 1/3만 시행됨. 최근 미국의 공화당은 이 법안을 부정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안을 무효화 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1.4. 곡물 재고 융자 및 관리

- 전략적 혹은 비상용 공공비축 물량 유지 시 비용 발생.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의 하에 주식을 보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고 패널 언급.

- Bernard Valluis, Deputy President, French Milling Association(발표 내용)
 - 재고비축은 식량안보를 위해서 필수적이거나, 비축비용이 발생하여 새로운 효율적이 방안이 필요하며 민간과 공공부분이 함께 공조해야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곡물재고 재정은 국제 재정기구와 함께 공동 추진하는 방안 모색 필요함.
 - 핀란드의 경우 3개월간의 재고량을 소비자(민간부문)가 구매하여 정부(공공부문)가 관리하는 비용과 경영 모두 효율적인 재고관리사례가 있음.

1.5. 무역 및 상품 관련 협회와의 업무 관계 강화를 위한 토론

- 사무국은 AMIS 품목과 관련된 주요 민간 협회와 업무 관계 강화 방안 논의. 각 협회는 조직에 대해 설명하고 AMIS와의 업무 관계 구축을 위해 가능한 방안 제시.
 - 패널 : COCERAL(곡물무역업체), CFC(상품공동기금),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GAFTA(곡물거래업협회), COPA-COGECA(유럽농업협동조합), NAEGA(북미곡물수출협회), US Grains Council(미국곡물협회) 등
- 협의회 측은 현재 주요 생산국의 생산정보는 대부분 투명하며 월별로 관측결과가 업데이트 되나, 수요측면은 기관별 예측에 불과하여 수요측면 관측의 중요성을 강조. 특히 가격변동성의 중요한 요소는 단기적인 공급 변화 뿐만 아니라 수요의 변동성이라는 점을 강조
 - 사무국은 AMIS 및 공공기관의 관측결과와 민간부분의 관측결과가 상이할 경우 관측결과에 대한 재평가와 합의가 필요함. 월별로 AMIS가 국제 곡물관측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민간부문과의 관측회의가 사전에 필요하며, 검증 또한 중요한 요소임.
 - 협의회는 기관별(민간, 공공부문)로 데이터 구축 및 관측에 특성이 있으며 장, 단점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하나의 대안으로 기관별 데이터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담당기관을 선정하고 AMIS가 데이터 및 관측결과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

2. 통계, D/B 및 방법론 (10월 3일)

2.1. 통계·방법론에 대한 AMIS의 진행사항

- 사무국은 AMIS 통계기법 및 D/B 관련 진행사항 및 시사점을 발표함.
- 사무국은 AMIS를 통해 국가별 수급 D/B 구축이 완료 (FAO-CBS, USDA-PSD) 되었음을 언급하고, AMIS 웹사이트 또한 개발 완료 (<http://www.amis-outlook.org/>)되었음을 언급.
 - AMIS 사무국이 인증한 사용자는 국가별 데이터를 다운로드 가능하며 FAO, USDA 데이터와 비교 가능
- 사무국은 곡물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 계획 (기말 재고율 등) 수립할 것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 규명 및 올해 말 이후 곡물시장 관측결과 공표를 계획 (IGC와 AMIS 협동연구추진) 중이며 향후 AMIS 관측결과를 웹사이트에 업로드 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특히, 사무국과 회원국은 시장 정보 수집 시 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및 처리 방안 토론.
 - 사무국은 AMIS 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각 국가별 유통연도(Crop year, Marketing year)와 현지 국가에서 사용하는 유통연도와의 차이점이 발생함을 발견.
 - 사무국은 국가별 생산량통계는 AMIS 사무국의 데이터와 거의 비슷하나, 소비 측면에서의 통계가 상이하거나 소비용도 구분(식용, 사료용, 가공용, 산업용, 종자용 등)이 명확하지 않음을 강조
 - 또한 국가별 공식통계라 할지라도, 재고량은 거의 대부분 정부와 민간 재고량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실측치보다는 예측치 임을 언급
 - 향후 사무국은 각 국가별로 접촉하여 위에 언급한 국가단위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사무국과 국가의 통계를 통일할 계획임. 통계 일원화 이후 국가별 수급 예측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회원국 모두 동의함.

2.2. 시장 및 정책 지표

- 현재 곡물시장관측의 취약점 파악을 위한 시장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검토 논의
- 사무국은 지표개발은 단기 곡물시장상황과 전망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RRF에 제공할 목적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지표란 단기 가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책자와 비전문가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데이터의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

- 사무국이 초정한 Brian Wright, UC-Berkeley 교수의 분석결과, 기말 재고율(기말재고량/소비량)과 곡물가격의 상관관계는 쌀을 제외하고 모든 곡물의 기말재고율은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고 미래가격예측에 훌륭한 설명변수로 분석.
- 회원국들은 국내가격, 국제가격, 가격 변동성, 국제 기말재고율, 유가와 식량가격 연동성, 바이오에너지 정책, 수출입 정책변화, 국내 정부보조 및 재고정책이 지표 개발의 중요한 부분이며, 기후변화, SPS & TBT, 소비자 및 생산자 보조, 투입재 가격, 환율도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
- 사무국은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표개발 분석 작업을 종료한 후 내년부터 곡물가격 예측을 시작할 계획임
- 사무국은 1990년대 후반에는 곡물 재고율이 17-18%이면 FAO에서 “안전한 단계”로 구분하였고 이 이하로 떨어지면 세계 식량 안보에 위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였다고 언급하였고, 세계 농업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지표를 조기경보지표로 사용 가능할지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 사무국은 최근과 90년대 후반의 세계 곡물 기말재고율의 차이는 대부분 중국의 기말재고량에 기인되며 중국의 기말재고율 하락으로 과거 FAO의 권고사항인 곡물 재고율 17-18%는 현재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파악되며 새로운 재고율 지표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 회원국들은 기말재고율 뿐만 아니라, 총 공급량(생산량+이월재고량+수입량), 수출량의 변화도 가격변동에 도움이 되는 지표로 고려해야함을 강조

2.3. AMIS의 프로젝트 및 역량 개발 활동에 대한 현재 상황과 전망

- 사무국은 AMIS의 역량 개발 활동 및 현재 상황을 발표하면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국가별 공식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통합된 데이터(생산, 소비 등) 및 예측치를 위해 AMIS 필요 강조.
- 현재 사무국은 AMIS의 역량개발을 위해 국가 평가 기준 개발(표준 CAQ 등)과 새로운 농업시장 데이터 구축 및 분석방법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
- 식량시장의 관측을 위해서 지역별로 데이터 구축 방법 교육 실시 및 데이터 구축 필요.
- AMIS 재정(\$5,609,264/36개월)으로 인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3

개국에 대해서 데이터 구축 및 통계구축방법 지원

- 일본의 재정지원(\$1,500,000/36개월)으로 태국, 필리핀의 쌀에 대한 통계구축방법 및 생산량, 단수, 재고량 예측방법에 대한 방법론 교육
- 사무국은 향후 AMIS작업 계획(2012년 10월 - 2013년 9월)을 다음과 같이 구상함.
 - 통계: 국가별 데이터 구축 완료. 관측 데이터 공표 준비
 - 지표개발 및 분석: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개발 및 공표, 분석 작업 지속
 - 역량개발: G-20 범위를 넘는 세계적 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위해서 역량개발
 - * AMIS 프로젝트(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일본 프로젝트(태국, 필리핀)
 - 국제적 네트워크: 국제공조강화, 민간부분과의 공조강화
 - GEOGLAM 기구 참여: GEOGLAM(Group On Earth Observations Global Agricultural Monitoring)은 89개국과 64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곡물 작황 정보 제공 가능 (인공위성 및 지상 데이터 이용)

3. 통계 기법 및 D/B 워크샵 (10월 4일)

- 각국의 정보 및 자료를 AMIS 통계 D/B에 입력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 사무국은 1:1 회의를 진행하고 만일 그룹 회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경우 해당 안건을 공표.
- FAO가 지정한 한국의 콩, 밀, 옥수수의 양곡년도(유통연도)가 일본의 양곡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정부의 공식통계인 양곡연도(11월-10월)로 모두 수정 함.
- 사무국은 한국의 수입 품목 분류(HS code)에 관심이 많았으며 정부의 무역통계와 사무국의 무역통계가 일치하지 않은 품목은 추후 수입 품목 분류를 확인 후 사무국과 단일화된 무역통계를 사용하기로 함.
 - * FAO의 무역 통계는 대부분 GTA(Global Trade Atlas)를 사용하고 있음.
- AMIS 사무국 요구사항
 - 사무국과 한국의 기말재고량의 통계 차이점은 우선적으로 양곡년도가 상이하였고, 소비량 추정치가 상이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협력하여 정부통계를 기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

원의 한국농업시물레이션모형(KASMO)을 활용하여 향후 사무국 요구(한국곡물관측)에 대응하기로 함.

- 사무국은 한국 측에 국제무역연도 기준의 곡물 무역 통계구축을 요구함.

* 국제무역연도(international trade year)는 국제 곡물 수급표를 작성하기위한 것으로 주요 수출국 위주의 국제 기준임.

- 사무국은 한국의 콩 소비량을 식용, 가공용, crush(대두유, 대두박)로 구분하여 제공하기를 요구하였고, 특히 수입되는 콩(대두)중 crush 되는 양(비중)과 식용으로 사용되는 양을 요구하였으나,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추후 한국정부와 협의하기로 대응함.

4. 관찰 및 평가

○ G20 농업장관회의 최대 성과물로 예상되는 농산물시장정보 시스템 구축(AMIS), 긴급대응포럼(RRF) 창설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의 지지의사가 표시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AMIS의 역량개발활동과 향후 계획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됨.

○ AMIS의 최대 목적인 세계 곡물수급관측에 있어서 현재 구축된 웹 사이트를 통한 회원국의 데이터베이스 입출력 시스템에 대해서 회원국 모두 지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과거데이터베이스 자료가 FAO-CBS 또는 USDA-PSD자료를 이용할 경우 회원국의 곡물수급데이터와 상이한 경우가 있어 AMIS 자체의 현실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함.

○ AMIS 사무국은 올해 회원국의 국가단위의 수급표와 FAO 데이터를 비교 검토하여 AMIS와 회원국 모두 단일화된 통계 수급데이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올해 말 또는 내년부터 AMIS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회원국의 단기관측과 민간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측결과를 공식적으로 공표하기로 계획함.

○ 우리측은 AMIS 사무국과 회의를 통하여 AMIS 데이터베이스(FAO)의 한국 곡물 수급데이터를 한국 정부통계로 수정하였으며, 일본의 양곡년도(곡물연도, 유통연도) 기준으로 사용된 한국의 양곡년도(유통연도)를 모두 한국정부통계로 수정함. 또한 향후 단기별 한국 곡물관측결과를 AMIS에 협조하기로 합의함.

5. 향후 일정

- AMIS회의는 매년 2회(6개월 간격으로)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현재 상황 및 미래 계획수립
- 2013년 3월 중 로마 FAO 사무국에서 회의 예정이며, 추후 사무국으로
부터 추가공지